

불법주정차 민원 해마다 증가 불구 해법 요원

서구 2019년 3천760건→지년대 2만9천378건 폭증 과태료 부과·지속 단속 등 계도 수준 임시방편 처리 공영주차장 확충·주정차 흠잡제 등 구청 노력 필요

최근 3년간 광주시 5개 자치구 가운데 '불법주정차 불편' 민원 신고가 가장 폭증한 곳은 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원 해결이 과태료 부과와 지속적인 단속 등 임시방편에 그쳐 실질적인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민원증가율(2019-2021년)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자치구는 서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의 연도별 불편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3천760건 ▲2020년 1만3천444건 ▲2021년 2만9천378건으로 3년간 민원이 약 8배 가까이 증가했다. '불법주정차 불편' 신고는 상담 민원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다. 2019년 2천389건에 그쳤던 동구는 2021년 9천328

건이 접수되면서 약 4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가장 적은 증가세를 보인 곳은 남구로 2019년 6천862건에서 2021년 9천479건으로 1.4배 가량 증가했다. 2019년 광주에서 불법 주정차 불편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광산구(2만4천644건)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북구에 각각 3만4천289건, 3만9천359건이 접수되면서 2년 연속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연도별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던 광산구와 북구의 동기간 민원 증가율이 각각 약 1.4배와 2.2배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서구민들이 불법주정차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함이 타 자치구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렇지만 접수된 민원의 처리 대부분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는 임시방편에 그쳐, 언제든 민원이 또다시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올해 상반기(1-6월)까지도 벌써 서구엔 1만6천886건의 불편신고가 접수돼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전년보다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서구는 구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주정차 상시 단속과 함께 동전통과 금호동 일대에 주차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기까지 갈 길은 먼 상황이다.

서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계획된 동전통 공영주차장은 지난달 7일 부지 내 건물 철거가 끝나 기본설계 용역 단계에 돌입했다. 관계자는 4개월간의 용역이 끝나고, 이르면 올해 말쯤부터 착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금호동에 신설될 공영주차장(주차타워)도 최근 부지 선정을 마쳐 매입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부지가 개인 사유지인 탓에 관계자는 매입 협의는 내년 하반기까진 완료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렇기에 주차장 신설 이전, 실질적인 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서구민의 영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10일 '서구톡톡(Talk Talk)' 게시판에 한 서구민이 '광주여고 앞 일

반도로 주정차 흠잡제'라는 제목으로 "광주여고 정문 앞 일반 도로에 양방향 주차를 해 차량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해소방안으로 주정차 흠잡제 시행을 제안한 바 있다. 최근 정의당 박형민 서구갑위원장도 광주효광중학교 정문 앞 도로 안전이 불법주정차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당국에 도로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박 위원장은 "화정2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례처럼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청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차 공간 부지 확보가 어렵더라도 지역 여건에 맞게 '주정차 흠잡제' 등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정차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재영기자

'행안부 경찰통제 위법' 광주서 경찰국 반대 촛불집회

안병하기념사업회 주최 광주·전남직장협의회 동참

전국 처음으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가 광주에서 열렸다. 31일 안병하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광주 유스퀘어 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고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을 밝히고 경찰 중립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촛불 집회 개최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집회에는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 등도 동참했다. 문화제는 국민의례와 공연, 자유발언,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스마트폰 화면에 촛불을 띄우는 방식으로 촛불을 들었다. 문화제를 주최한 안호재 안병하기념사업회 대표는 "치안본부 시절 무력진압을 하지 않은 경찰관들은 강제로 옷을 벗거나 인사를 불이익을 당했다"며 "정부가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친이 사랑하던 경찰 조직이 권력에 또 이용되는 것을 바라볼 수 없다"며 "경찰관들과 연대해 끊임없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가 지난날 29일 오후 광주 유스퀘어 앞에서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반대를 위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국가·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

국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실은 다른 비대 권력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무 중에는 경찰 또는 치안에 관한 사

무는 없기에 행안부에 경찰통제조직을 두는 건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59) 치안감이 임명됐다. /오복기자

소상공인 상대 15억 갈취 40대 사기범 체포

수입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싼값에 공급하겠다고며 소상공인으로부터 15억원을 갈취한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40대 초반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납품을 약속했던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대금 15억원가량을 챙겨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전국 각지에서 도·소매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6명이다. A씨는 인터넷에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피해자를 끌어모았다. 약 2개월 동안 정당한 납품을 이행하며 신뢰 관계를 쌓았다. 실제 지난해 11월10일 '서구톡톡(Talk Talk)' 게시판에 한 서구민이 '광주여고 앞 일

며 시간을 끌다가 거액의 대금을 모아 잠적했다.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휴대전화, 자동차, 신용카드 등 위치 정보를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은 쓰지 않았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 시기에 서민을 등친 경제사범을 검거하고자 전담반을 꾸렸다.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 수도권 여러 곳을 거쳐 대구까지 달아난 A씨를 탐문과 잠복 끝에 체포했다. A씨는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십 회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빼돌린 돈의 사용처는 밝히지 않고 있다. 공범은 없는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의 A씨의 여죄를 추궁하며 구속 이후 통관 절차 지연 등을 핑계로 들

광주·전남 교통사고·차량 화재 잇따라

밤사이 광주와 전남에서 교통사고와 차량 화재가 잇달아 발생했다. 3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후 9시34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5가에서 도로를 건너던 70대 노인이 달리는 택시에 치였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갑자기 B씨가 뛰어들어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노인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전남에서도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오후 6시55분께 영암군 학산면 도

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전신주와 상점 세움 간판을 연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와 탑승자 등 4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사고조사를 진행 중이다. 같은날 오전 1시21분께 무안군 동탄면에서, 전남 오후 8시21분께에는 나주시 빛가람동에서 차량 단독화재가 각각 발생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1대씩 불에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오복기자

잠수교육 받다 실종된 60대 숨진 채 발견

잠수 교육을 받다가 실종된 60대 대이 버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

은 지난 29일 오후 5시42분께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목섬 북서쪽 140m 지점의 수중에서 숨져 있는 A(62)씨를

발견했다. 해경은 전남 오후 잠수 교육을 받던 A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강사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민간 구조선 등과 함께 인근 해상을 수색했다. A씨는 교육생 2명과 함께 슈트, 공기통 등을 착용하고 입수했다가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강사와 교육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흥=김두성기자

제사나라 www.jesanara.com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기원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위폐